

# 박인비-리디아 고 '골프여제 대결' 끝까지 간다

박인비,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우승 '올해의 선수' 등 맹추격... 19일 시즌 최종전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 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천8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기록하며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15언더파 273타의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시즌 5승째를 거뒀다.

올해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를 시작으로 5월 노스텍사스 숏아웃 우승에 이어 메이저 대회인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른 박인비는 약 3개월 만에 승수를 보였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을 획득한 박인비는 이 부문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격차를 3점으로 좁혔다.

올해 남은 대회는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유일하다. 우승 상금 20만 달러를 받은 박인비는 상금 부문에서도 257만96 달러를 기록, 1위인 리디아 고의 275만8417 달러와 격차를 18만8000달러 정도로 좁혔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50만 달러다.

또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박인비는 69.43타로 69.449타의 리디아 고를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박인비와 리디아 고의 올해의 선수, 상금, 평균 타수 부문 경쟁은 결국 시즌 최종전에서 결정된다.

박인비가 1타 차 리드를 잡은 가운데 시간다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15번 홀(파4)에서 시간다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박인비는 달아날 기회를 잡았으나 약 4m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왔다. 반면 시간다는 위기를 파로 막아내며 1타 차 간격이

리디아고	11월16일 현재	박인비
1997년 4월24일(서울)	출생	1988년 7월12일(서울)
뉴질랜드	국적	대한민국
캘러웨이	소속	KB금융그룹
33점(1위)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2위)
275만8,417달러(1위)	우승 상금	257만96달러(2위)
69.449타(2위)	평균 타수	69.433타(1위)
총 5승	우승 이력	총 5승
호주여자오픈	(2015년 기준)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스윙잉스키츠 클래식		노스텍사스 숏아웃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KPMG 위민스PGA챔피언십
에비앙 챔피언십		브리티시 여자오픈
푸른 타이완 챔피언십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유지했다. 그러나 16번 홀(파3)에서 결국 승부가 갈렸다. 시간다의 티샷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면서 결국 이날 유일한 보기를 적어내 박인비와 격차가 2타로 벌어졌다. 승기가 박인비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각종 타이틀 부문에서) 기회를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우승을 못했다면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올해의 선수상을 포함한

상금, 평균 타수 부문의 욕심을 드러냈다.

박인비는 "시즌을 마치기 전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무엇이든 들고 가고 싶다"며 "많은 팬이 응원해주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인왕 김세영(22·미래에셋)이 13언더파 275타로 단독 3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은 11언더파 277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끝난 LPGA 투어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가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외 여자골프 '챔피언스 트로피' 출전 선수 확정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맞붙는 '챔피언스 트로피'에 출전할 선수들이 확정됐다.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베이스드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미국 무대에서 뛰는 박인비(27·KB금융그룹), 김세영(22·미래에셋) 등과 한국 무대에서

뛰는 박성현(22·넵스), 이정민(23·비씨카드) 등 각팀 1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1,2라운드에서는 포볼과 포섬 각 3게임을 치르고, 3라운드에서 싱글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승부를 정한다. 한편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4관왕에 오른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휴식과 함께 오는 12월 4일 열리는 4개 투어 대항전인 '더 링크스'에

집중하기 위해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출전 선수

▲LPGA 투어 = 박인비 김세영 유소연 김효주 장하나 최운정 이미향 이미림 이일희 신지은 백규정 박희영

▲KLPGA 투어 = 박성현 이정민 조운지 고진영 배선우 김민선 김보경 서연정 김해림 김지현 안신애 박결

/연합뉴스



## 광주시청 육상팀, 전국체전 빛낸 최우수단체 선정

광주시청 육상팀이 제 96회 전국체육대회를 빛낸 최우수단체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제 96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사진)'을 갖고 광주시청 육상팀을 최우수단체팀으로 선정, 수상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광주 선수단의 종합 순위 11위 달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재용 감독의 지도력과 선수들의 땀·노력이 결실을 맺어 김국영이 육상 단거리 4관왕과 대회 최우수선수인 MVP에 올랐으며 김덕현(4연패), 배찬미(3연패)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도의 김연수(2관왕)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금메달 4개를 획득한 광주체고

황규동 역도부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채동식 광주선발 볼링팀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또 종합 1위를 달성한 경기단체인 공도, 양궁, 소프트볼 종목 대표에게 각각 표창패와 포상금이 주어졌고 정동진 서석교 감독도 감독, 류공선 시체육회 스쿼시 코치도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양궁 3관왕인 최미선(광주체고 2년), 수중민수영 윤아현(광주체고 2년), 럭비 박준범(전남고 3년)도 금·은·동메달 획득 대표로 각각 포상금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도 역도 안시청(광주체고 3), 볼링 정정원(문정여고 3), 소프트볼 이선주(명진고 3)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체조 김유환(광주체고 3)은 연패상(3연패)을, 사이클 권세림(광주체고 2)은 신기록수립상을 각각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KIA 양현종 '수비 특별상' 받을까

KIA 양현종이 수비 특별상에 도전한다. 2015 KBO리그 골든글러브에서 시상할 수비 특별 부문 'ADT캡스플레이어 2015' 후보 9명의 명단이 16일 발표됐다.

각 포지션별 베스트 수비수는 올 시즌 선수들이 기록한 ADT캡스수비율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수상자는 야구팬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해진다.

투수부문에서는 KIA 양현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삼성 이지영은 포수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내·외야수 부문에서는 1루수 박병호(넥센), 2루수 정근

우(한화), 3루수 김민성(넥센), 유격수 오지환(LG), 좌익수 김종호(NC), 중견수 박해민(삼성), 우익수 유한준(넥센)이 후보에 올랐다.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온라인 투표는 오는 30일 자정까지 포털사이트 Daum 내 ADT캡스플레이 홈페이지(http://live.media.daum.net/sportsvod/adtcaps2015)에서 이뤄지며, 투표는 '1인 1일 1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 중 추첨을 통해 윈스 글러브, 야구 국가대표 유니폼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윤석민, 21일 야구교실

에이스 윤석민이 코치로 변신해 어린이 팬들을 만난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어린이 팬과 함께하는 야구교실을 연다.

어린이 야구교실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그라운드와 실내연습장에서 진행되며 캐치볼과 투구, 타격, 수비 훈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KIA를 대표하는 투수 윤석민이 홍우태 코치 김민우, 차일목, 이성우, 김광수, 임준혁과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꼼꼼한 기본기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2015년 KIA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을 비롯한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KIA 타이거즈 유니폼 및 모자, 글러브, 유소년 가방 등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부대행사로 사진 촬영 및 사인회,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7일 오후 2시부터 이메일(kidstigers15@naver.com)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에 한해 접수가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를 참고하거나 마케팅팀(070-7686-8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서석초,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 야구대회 우승

광주 서석초가 제1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16일 광주 분량 리틀야구장에서 열린 광주 화정초와의 대회 결승에서 홈런 1개를 포함한 장단 8안타를 때리며 4-1로 승리를 거뒀다.

우승팀인 서석초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주어졌다. 준우승(화정초)과 3위 2팀(나주북초, 화순초)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야구용품이 각각 주어졌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도 참가 기념품으로 야구용품이 주어졌다.

또한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서석초 임경복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함께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지난 9일부터 13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진행됐으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가 펼쳐졌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임경복(서석초) ▲타격상 : 윤도현(0.900·화정초) ▲우투수상 : 송성종(서석초) ▲최다안타상 : 윤도현(9개·화정초) ▲홈런상 : 김낙인(2개·화정초) ▲최다타점상 : 윤도현(4타점·화정초) ▲수훈상 : 최지욱(서석초) ▲감독상 : 문동주(화정초) ▲미기상 : 하준서(화정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